

“화두·참선 기초지식 쌓아야”



19 선병

선 수행을 할 때 주의, 또는 조심해야 할 사항을 ‘선병(禪病)’이라고 합니다. 선병이란 선과 불교에 대한 안목, 참선수행에 대한 지식부족, 선의 정도(正道)를 제대로 알지못해 발생하는 정신적 오관이나 잘못된 견해입니다. 이것은 화두를 참구하기

것이 있느냐’는 식으로 허송세월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사선(無事禪), 허무주의, 니힐리즘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6) 사랑 분별심(思量分別心) : 이것저것 따지고 억측, 헤아리고(사랑), 분별, 전착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화두공부란 첫째 사랑심과 분별심을 버려야만 진도가 있는데 자꾸만 ‘이걸까? 저걸까?’ 추측, 분별하는 것입니다. 분별심은 번뇌와 갈등을 일으키며 한 눈을 팔게 합니다.

7) 알음알이 : 한자로는 지해(知解)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해병’이라고도 하는데 주로 언어적 학문적 지식적으로 분석, 전착하여 알려고 하는 것으로서 앞의 사랑 분별심과 같습니다.

8) 문자 속에서 고증하고자 하는 병 : 경전이나 논서, 선어록 등 책에서 관련된 글을 찾아서 인용하여 화두를 해석하거나 전착하는 병입니다. 다시

‘치선법비요경’ ‘수습지관좌선법요’ ‘서장’ 등 선병 다뤄 단전호흡·기공 등 신비주의 추구도 ‘선’ 몰라 생긴 선병

에 앞서 미리 알아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선병을 다룬 책에는 <치선법비요경(禪法秘要經)> 등 4-5종의 경전류와, 천태 대사(538-597)의 <수습지관좌선법요(修習止觀坐禪法要)>, 박산무이(1574-1630) 선사의 <참선경어(參禪警語)>, 대혜 선사(1088-1163)의 <서장(書狀)> 등이 있습니다.

대혜 선사는 <서장>이라는 책에서 선병으로서 크게 혼침(昏沈)과 도거(掉舉) 등 10여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혼침(昏沈) : 정신이 멍한 상태. 흐리멍덩한 상태입니다. 참선을 한다고 앉아 있기는 하지만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 화두를 망각한 상태가 혼침입니다. 무엇 때문에 앉아 있는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자각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졸음이 와서 정신이 몽롱한 것, 비몽사몽 같은 상태도 혼침입니다.

2) 도거(掉舉) : 도거란 ‘떠오른다’는 뜻입니다. 번뇌 망상과 잡념이 끊없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앞 망상이 끝나기도 전에 뒷 망상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도거입니다. 과거에 대한 회상, 미래에 대한 생각(불안감), 현실성이 없는 생각 등이 모두 망상이고 도거입니다.

3) 무기공(無記空) : 화두를 망각한 상태를 ‘무기’ 또는 ‘무기공’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고요(寂)하고 평온한 것은 좋는데, 평온함과 고요함에 경도돼 화두를 놓친 상태,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혼침과 무기공은 거의 같으면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4) 산란(散亂) : 산란은 번뇌 망상 등 잡생각이 떠올라서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로 도거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마음이 심란하고 분위가 산만해 안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5) 공무(空無=空亡) : 일체개공의 뜻을 착각해 “모든 것은 다 공하여 없는 것인데 뭘 깨닫고 닻을

말하면 “어는 경에서는 이렇게 말했으니 이 뜻이다” 또는 “어떤 선어록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으니 이 뜻이다”라는 식으로 참구해서는 안 된다

9)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깨달은 척 꺾 낚은 생각 : 깨달은 척하는 꺾 낚은 병인데 이것 역시 큰 병입니다. 잘못하면 참선자의 인생을 망치는 병입니다.

10) 고요함에 빠지는 병 : 마음이 좀 고요해졌다 고 해 그것을 깨달음으로 착각하는 병인데, 그것은 마음이 일시적으로 평온해진 것일 뿐,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화두참구심이 부족한 것(탐구심, 의문심, 의단이 부족한 것), 시끄러운 것을 피하고 조용한 곳을 추구하는 마음, 계율을 무시하고 막행막식을 일삼는 것, 무사안일, 방일, 게으름 등 박산무이 선사의 <참선경어>에는 50여 가지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열거한 혼침, 도거, 무기공, 사랑분별심, 알음알이, 깨달은 척 하는 마음 등 10여 종입니다.

무자화두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는 무로 생각하지 말라’ ‘유무를 초월한 참된 무(眞無의 無)라고 생각하지 말라’ ‘심오한 이치가 들어 있는 무(無)라고 생각하지 말라’ 등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날 화두참선에서 가장 큰 병은 앞의 열 가지 보다는 ‘제대로 참선을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는 병’과 ‘아무런 기초지식도 없이 화두를 들거나 참선하려고 하는 병’ ‘무조건 오래 앉아 있기만 하는 장좌불와병’입니다. 화두를 참구하는 방법과 참선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 등을 갖추지 않으면 90%는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전호흡이나 기공, 신체적 정신적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것도 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면서 나오는 선병의 일종입니다. ■윤창화 민족사대표

깨달은 여인들의 수행법

중생욕망 따라 몸 나타내 제도한 보살 화신

④ 바수밀다

<화엄경> ‘입법계품’에는 창녀 바수밀다가 선 지식으로 등장한다. ‘바수밀다(Vasumitra)’는 세우(世友) 또는 천우(天友)라고 하는 뜻인데, 뛰어난 방편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교화한 까닭에 붙여진 이름이다. ‘입법계품’에서 선재동자가 구도여행 중에 찾아가는 53선지식에는 보살, 비구, 비구니를 비롯해 저자거리에서 법을 설하는 사람, 뱃사공, 음탕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과 신분을 지닌 사람들이 등장한다.

‘바수밀다’라는 이름이 세간에 알려진 것은 2004년 김기덕 감독이 만든 영화 ‘사마리아’를 통해서였다. 이 영화는 당시 사회문제가 되고 있었던 원조교제를 다룬 문제작이었다. 이 영화에서는 여행비를 모으기 위해 원조교제를 하는 두 소녀 중 한 소녀가 결국 자살하면서 이런 말을 남긴다.

“인도에 바수밀다라는 창녀가 있었어. 그런데 그와 잠만 자고 나면 남자들이 모두 참된 불자가 된다... 날 바수밀다라고 불러줄래?”

순진한 마음으로 원조교제를 하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소녀는 선(善)으로, 애욕을 합리화한 사회라는 테두리는 악(惡)으로 대비한 듯 다양한 문제의식을 던진 영화였다.

바수밀다는 창녀라는 직업을 가졌기에 ‘입법계품’에서도 선재동자가 그를 찾았을때, 사람들은 경정하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그러나 바수밀다의 지혜와 공력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바수밀

다를 찬양하며 선재동자를 그에게 소개했다. 선재동자가 보살도 수행에 대해 법을 청하자 바수밀다는 이렇게 말한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며 애욕의 근본을 여의었다. 그래서 나는 온갖 중생들이 좋아하는 애욕을 따라 여러 가지 몸을 나타내노라. 하늘사람이 나를 볼 때에는 나도 하늘아가씨가 되어 얼굴과 광명이 훌륭해 견줄 데가 없으며, 사람과 사람 아닌 신장들이 나를 볼 때에는 나도 그들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꾸며 제각기 욕망을 따라 나를 보게 되노라. 어떤 중생이 애욕에 끌리어 나의 몸을 보고 불타는 애정을 참지 못해 슬 취한 듯 덤

는 경지 역시 이를 상징한다. 바수밀다가 이어서 설법한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보더라도 애욕을 여의고, 잠깐동안 나와 말을 주고 받기도, 잠깐만 나의 손을 잡더라도, 잠깐동안 내 자리에 앉더라도, 잠깐만 나를 살펴보더라도, 나의 몸짓을 보더라도, 나의 눈 깜빡이는 것을 보더라도, 나를 끌어안더라도, 나의 입술에 입맞추더라도 곧 애욕을 여의고 보살의 온갖 중생들의 복덕을 길러주는 삼매를 얻나니...”

방편 지혜의 완성자인 바수밀다는 세속의 오염된 법을 행하면서도 스스로는 일념(一念)도 오염된 마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중생도 오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와 같이 오락악세(五濁惡世)에서 물들지 않고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방편지혜’의 완성자 ... 53선지식 중 한명 오락악세에 물들지 않고 보리심 내 중생제도

비면 나는 그를 위해 여러 가지 법문을 말하노라. 그러면 그는 어느덧 애욕을 여의고 경계에 애착하지 않는 보살의 삼매를 얻게 되느니라.”

여기서 ‘애욕의 경계를 여인 해탈’ 법문은 보살이 중생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교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수밀다가 ‘중생의 욕망에 따라서 몸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마치 관세음보살이 온갖 중생의 구조요청에 응해 제각기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다. 이는 선사들이 수행자나 일반인과 함께 생활하며 수행과 교화에 힘쓴다는 ‘이류중행(異類中行)’과 상통한다. 구도의 10단계를 묘사한 심우도(壽牛圖)의 최후경지인 ‘입전수수(入處垂手)’ 즉, 시중에 들어가 중생을 제도하

보리심을 발해 중생제도를 발원한 보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바수밀다는 많은 수행자들이 보리심을 내고도 애욕 때문에 위없는 부처님의 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을 우려하면서, 대승의 큰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고 제도한 보살의 화신(化身)인 것이다.

서산 대사는 <선가귀감>에서 “수행의 요점은 오로지 자성(自性)을 오염(汚染)시키지 않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물론 자성은 헤는 선사가 회양 선사에게 말했듯이 “물들이려야 물들 수 없는 자리”이며, 모든 부처와 중생이 공통적으로 가진 것이다. 부처와 중생, 너와 내가 이미 태어날 때부터 평등하게 갖추고 있기에 자성은 단박에 깨질 수 있다는 것이 돈오(頓悟)의 가르침이다. 김성우 기자

선행게시판

●청소년 마음동산 꾸미기=우곡심성개발교육원 ‘청소년 마음동산 꾸미기’가 매달 둘째, 넷째 토요일 해운대 오션타워에서 열린다. 한국청소년진흥센터로부터 인증을 받은 이번 프로그램은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만다라 명상수업·인간과 환경 관계 강의·발우공양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051)740-6288, www.wookok.org

●단기좌선=강남포교원에서는 10월 23-25일 수선당에서 단기좌선을 실시한다. 동참금은 3만원. (02)539-2631

●사마타·위빠사나 집중수행=붓다선원은 10월 23-27일 연기 지장사에서 사마타와 아나빠나삿피(위빠사나) 집중수행을 진행한다. 불원 김열권 법사는 개인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 일상에서도 가능한 수행법을 지도한다. 동참비는 10만원으로 선착순 15명 접수가능. (041)868-3119

●신묘장구대라니 108독 철야정진=서울 능인선원이 10월 25일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30분까지 대법당에서 신묘장구대라니 108독 철야정진을 갖는다. 동참비는 1만원. (02)577-5800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사는 본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바타 마스터 김희균
 ●전화문의 상담 현황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512-2736
 http://www.avatatar21.com
 E-mail: heegyun@avatatar21.com

탈 종 공 고

- 사찰명 : 연화사 ●법 명 : 도정 (하두영) ●주 소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641번지
- 사찰명 : 반야암 ●법 명 : 혜정 (김영순) ●주 소 : 경남 하동군 황천면 남산리 원동 25-1
- 사찰명 : 관암사 ●법 명 : 영화 (배순재) ●주 소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외울리 1155번지

위 3개 사찰과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재)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보탑사
- 법 명 : 혜조(김필연)
- 주 소 : 울산 남구 선암동 34-1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금강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관음정사
- 법 명 : 석 성두(김영만)
- 주 소 :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147-9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대한불교 삼보조계종 총무원장 법하